



독심 정치, 인천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가 본분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위원장

김대중 시의원은 인천시 이종행정을 꼬집으며 협조할 것은 하겠지만 폐단은 바로잡고 대기업 위주가 아닌 주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해결하는 의원으로서 제9대 후반기 시의회 건설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고 운을 뗐다. 김 위원장은 대민접촉 현장은 결이 달랐다고 한다. 주민 실생활 눈높이에 조금만 맞추어도 해소될 문제가 탁상행정 때문에 주민 삶은 더 고통스럽고 무겁다고 밝혔다. 적극 행정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눈빛에서 나오는 결기는 대단했다.

▶김대중 의원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하반기 건설위원장에 선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인천시민분들께 인사를 바랍니다.

김대중 시의원입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의 중책은 지역구 주민들이 키워 주신 무거운 자리입니다. 주민 실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노력하는 자리로 김대중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 건설사업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다. 인천시의회가 앞으로 살피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최근 건설위 핫이슈라면 인천시 이종행정이 아닐까 싶다. 항만 주변의 분진 및 소음 문제로 이주가 추진 중인데 항운 연안아파트 인근 수천 세대의 아파트 허가야말로 이종적 행정으로 이 문제는 꼭 다루어야 한다. 인천시가 지난해 1월 항동 1-1지구 일부에 주거용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대기업 편익주의 엇박자 행정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

데 오랜 기간 행정력을 소모해 만들어 낸 집단이주와 배치되는 모습이다. 연안 항운아파트 이주문제를 원위치 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철회와 주변 토지주들에 대한 형평성 있는 행정이 시급하다. 시 집행부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해결책을 세우는 것은 지방정부와 시의회가 할 일이다.

▶의원님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직된 여론이 아닌 지방정부나 정부는 진정한 봉사 정신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얻는 정치를 해야 한다.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국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로 공직자는 누구 위해 존재하는지 잘 알아야 하고 공정과 상식에 직위를 걸어야 한다. 특히 공직자가 직언을 못 하는 공직사회가 안타깝다. 인사권을 가진 집행부 눈치를 보는 것은 사실상 답답한 문제다. 진정성이 있는 개혁이란 공직사회가 변해야 하는데 청렴한 공직자가 중용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작은 미약해도 인천시부터 미래를 향해 가는 것이 민심이고 천심이다.

▶공정 행정을 평소 주장했다. 공직자는 어떤 태도가 중요한가?

지방자치나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는 국민에게서 불편함이 있는지 세심한 행정이 요구된다.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면 전사적으로 해결책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풀어야 한다. 법은 중요한 잣대지만 현실적으로 다 옳은 것은 아니다. 사안별 다를 수도 있는데 종합 예술적인 유연한 태도가 공정 행정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 누굴 존경하는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다. 나라와 국민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대한민국 미래의 비전을 구축했다. 공과는 있지만, 이 나라를 위해 부국강병 초석을 다진 분이다. 경제성장에 있어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준 분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주의로 인해 과(過)도 있었지만. 공(功)이 더 많다. 이 나라가 성장이 된 현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제 시대가 변한 만큼 경제 또한 실(實)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다. 이런 뉘는 현대사회 우리가 주축다. 생각을 바꾸면 투명하게 더 성장할 수 있다. 과거는 교훈이다.

▶끝으로 평소 김대중의 소신을 말해 달라?

김대중이 여기까지 오도록 응원해 준 것은 주민입니다.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절 수천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던 요구가 제도권의 국회의원 입법으로 법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본 이후에 정치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 만족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고통은 김대

중의 고통입니다. 아픔을 함께 느끼겠다고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한 정치가 오늘 건설위원장이란 중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민들께 보답하는 길은 정의롭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주민 명령을 받드는 길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영위하는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노력할 때가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인천시의회 의원으로서 30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 공부하면서 일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를 세계적인 살만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비판과 성원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을 위해 싸울 줄 아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들과 협치하여 시민들께서 의식주에 걱정이 없도록 일선에서 뛰겠습니다. 중앙 정치와 다르게 항상 인천시민을 위한 길을 건도록 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의견이 좀 달라 싸울 때 싸울지라도 우리 지역 사랑을 위해 한 길만을 보고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미력하나마 김대중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미순 기자

이인교 시의원, 권력과 바꾼 '봉사의 길'

주민이 준 명예는 관리가 필요... 지역 지키는 길이 우선
정치력은 국회의원·시의원도 같은 길, 주민들 찾아 발품

이인교(국민의힘, 남동6)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이력이 특이하다. 뚜벅이 동네한바퀴 머슴 시의원으로 잘 알려진 풀뿌리 민주주의 지역 정치인을 만났고 그 행보를 추적해 봤다.

인천시의회 의원 중 정치권 활동에서 세 손가락에 들 정도로 오랜 경력을 가진 이인교 의원을 두고 그만큼 대민접촉이 많다고 주민들의 의견은 중론이었다.

이인교 의원은 낮과 밤 관심사는 주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 실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철저하다. 이 의원은 남동6 등은 일부 오래된 원도심 지역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한다. 다른 지역과 비교

해도 인프라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밤이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는 주차장이 부족해 주차 전쟁 등 자연 생태를 구축할 기반 시설이 적다는 것이 현안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위는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인교 의원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 전·후반기 활동을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와 예결위에 속했다. 이번 제9대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다. 왜 의장 출마를 포기했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포기했는지 확인했다.

이인교 의원은 이번 의장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참여했다고 한다. 전반기 상임위 의장단은 의장에 나 갈 수 없다는 서명이 있었다.

후반기에는 전반기 의장단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만 자격이 있었다. 권력의 욕심은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다는 속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수행한 의원들은 양보란 없었다. 결과론은 끝까지 갔다는 것이다.

이에 이인교 의원은 이제야 말한다는 것, 자신은 대립보다 지역 주민을 위한 실리를 선택했다고 한다. 의장부터 상임위원장은 이인교 의원 지역구 발전을 위해 가는 길은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것이다.

이인교 의원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는 상임위 등 의장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간절함은 당연하다고 한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길을 가려면 때론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 진심은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도 확고했다. 이 의원은 자신을 팔아서라도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다시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 신념은 주민 사랑에 감동이 밀려온다. 아마도 사랑받는 이유는 이런 결단과 비울 줄 아는 자세로 분석된다. 시의원 당선 후 속내는 권력의 속성을 따라가지 않고 주민에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이다.

지역 발전을 시키겠다는 뜻은 통했다. 강화군에 박용철 시의원이 있다면 남동구는 이인교 시의원이 있었다. 지역 예산 확보 전쟁에서 베스트 의원이란 소리가 파다한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지역 사랑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런 시정 활동이 주목을 받는 평가다. 늘 전략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 이인교 의원 하반기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문미순 기자